

# 일본근대의 ‘아카데미즘사학’과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송완범\*\*

## 目 次

- I. 머리말
- II. 최근의 구로이타에 관한 연구 개관
- III. ‘일본근대역사학’과 ‘아카데미즘사학’
- IV. 구로이타와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의 목표는 일본근대역사학의 시작은 언제일까? 그리고 일본근대역사학에서 고대사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874~1946년)가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연동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본근대역사학의 주류는 이른바 ‘아카데미즘사학’으로 불리는 관찬 사학이며 실증주의 사학으로, 이 ‘아카데미즘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한 한국의 근대역사학의 출발과도 구로이타는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로이타의 역사관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통사 『국사의

\* 먼저, 본고의 목록치 않은 성고 과정에 있어 ‘홍익재단’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동 재단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연구』로서, 이 『국사의 연구』, 특히 초판과 재정판 이후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로 구로이타가 생각한 근대역사학 나아가 ‘아카데미즘사학’의 연원을 찾는 길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 일본근대, 아카데미즘사학, 黑板勝美, 남북조정윤문제, 『국사의 연구』

## I. 머리말

일본근대역사학의 시작은 언제일까? 그리고 일본근대역사학에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874~1946년)가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sup>1)</sup>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연동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근대역사학의 주류는 이른바 ‘아카데미즘사학’<sup>2)</sup>으로 불리는 관찬 사학이며 실증주의 사학인데, 이 ‘아카데미즘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구로이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구로이타는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한 한국의 근대역사학의 출발과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계의 관심은 아직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 듯하다.<sup>3)</sup>

그런데 메이지(明治) 2년(1869)에 천황은 수사(修史)사업을 명하고 있다. 메이지가 친필로 쓴 ‘수사의 미코토노리(詔)’<sup>4)</sup>의 핵심은, 『삼대실록(三代實

1) 송완범, 『식민지 조선의 黑板勝美와 修史사업의 실상과 허상』,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95~130쪽 참조.

2) 여기서의 ‘아카데미즘’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위 중시의 학풍 및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혹은 교육기관, 학회, 학회지 등의 여러 제도를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으로 하는 직업적 역사가집단에 의한 실천과 그에 유래하는 가치관이라고 이해한다.

3) 주1)의 논문, 98쪽의 주)10 참조. 이에 더하여 한국고대사연구의 100년에 대한 전망은, 노태돈, 『고대사 연구 100년-민족·발전·전승-』,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5~18쪽 참조.

録』<sup>5)</sup> 이후 끊어진 수사사업을 계속 잇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속조치로는 수사에 필요한 사국(史局), 즉 담당 기관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이지 신정부의 수사사업에 대한 이해는 『삼대실록』 이후 단절된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다. 요컨대, 근대역사학의 시작을 의미하는 메이지의 수사사업의 시작 배경에는 근대 이전부터 연유하는 문제라는 천황 스스로의 생각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쿄(東京)대학의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의 홈페이지<sup>6)</sup>에 의하면, “교와(享和) 원년(1801)에 화학강담소(和學講談所)<sup>7)</sup>의 하나와 호키이치(塙保己一, 1746~1821년)<sup>8)</sup>는 ‘육국사’<sup>9)</sup> 이후의 사료편찬을 막부에 건의한다.

4) “修史八萬世不朽ノ大典、祖宗ノ盛舉ナルニ、三代実録以後絶ヘテ続クナキハ、豈大關典ニ非スヤ。今ヤ鎌倉已降ノ武門專權ノ弊ヲ革除シ、政務ヲ振興セリ。故ニ史局ヲ開キ、祖宗ノ芳躅ヲ繼ギ、大ニ文教ヲ天下ニ施サント欲シ、總裁ノ職ニ任ズ。須ク速ニ君臣ノ名分ノ誼ヲ正シ、華夷内外ノ弁ヲ明ニシ内外ノ命ヲ明ニシ、以テ天下ノ綱常ヲ扶植セヨ”

5) 고대일본의 율령국가시대의 정사인 ‘육국사(六國史)’ 중 가장 기술이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나중 후대의 관료들이 실무를 담당할 때 선례의 기준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식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칙과 상표문, 그리고 관례 등에 이르기까지의 세세한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송완범, 『‘육국사(六國史)’의 편찬과 ‘일본율령국가’의 수사(修史)사업-『속일본기』와 『일본삼대실록』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43, 일본사학회, 2016 참조.

6)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홈페이지([https://www.hi.u-tokyo.ac.jp/about\\_hi/history-j.html](https://www.hi.u-tokyo.ac.jp/about_hi/history-j.html)) 참조.

7) 하니와가 간세이(寛政) 5년(1793)에 막부의 허가를 얻어 에도(江戸)에 설립한 학사로 국사와 율령에 대해 강의하고 『군서유종(群書類從)』 『무가명목초(武家名目抄)』 등을 편찬했다. 게이오(慶応) 4년(1868)에 폐지. 이중 『무가명목초』는 분카(文化) 3년(1806)에 대학료(大學寮, 중앙의 관리양성기관)의 장관인 대학두(大學頭)였던 하야시 쯤사이(林述斎, 1768~1841년)가 하니와에게 명한 편찬사업으로 ‘육국사’ 이후부터 에도막부 성립인 게이초(慶長) 8년(1603)까지의 실록편찬이 주된 업무였다. (일본 위키사전 참조)

8) 에도시대의 국학자로 그가 편찬한 총서인 『군서유종』 및 『속군서유종(続群書類從)』은 에도막부와 다이묘(大名) 및 사원 그리고 구케(公家) 등의 협력을 얻어 고대부터 에도시대 초기까지의 사서와 문학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역사학은 물론이고 국학 및 국문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9) 육국사가 각각 다루는 시기 및 관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미완인 채로 메이지 신정부에 인계되었다. 그 후 이 사업은 메이지 정부에 의해 현재의 도쿄대학인 제국대학으로 이관되고, 현재와 같은 연구 편찬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메이지 28년(1895)이었으며, 그 대표적 성과물인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sup>10)</sup>와 『대일본고문서(大日本古文書)』<sup>11)</sup>가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34년(1901)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1801년의 하나와의 건의로부터 따지자면 실로 한 세기만의 성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따르면 일본근대역사학의 시작은 메이지 근대 수사사업이 시작 단계 전부터 다양한 사료에 입각한 편수(編修) 사업이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제Ⅱ장에서는 최근 들어 활발해진 구로이타에 관한 연구를 개관할 것이다. 다음의 제Ⅲ장에서는 일본근대역사학의 성립의 원점으로서 과거, 특히 근대 바로 앞 시대인 근세의 편수 사업에 대해 다룰 것이다. 특히 ‘아카데미즘사학’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남북조정운문제’란 어떤 문제였고 아카데미즘사학에 준 충격은 또 어떤 것

사서명	해당 시기	권수	완성	편찬자	비고
일본서기	神代-持統天皇 (?~697)	30	720년	舍人親王	30권 이외에도 계도(系圖) 1권이 있었지만 망실
속일본기	文武-桓武天皇 (697~791)	40	797년	菅野眞道 藤原繼繩	
일본후기	桓武-淳和天皇 (792~833)	40	840년	藤原冬嗣 藤原緒嗣	전 40권 중 10권만 현존
속일본후기	仁明天皇 (833~850)	20	869년	藤原良房 春澄善繩	
일본문덕천황실록	文德天皇 (850~858)	10	879년	藤原基經 菅原是善 嶋田良臣	
일본삼대실록	清和-光孝天皇 (858~877)	50	901년	藤原時平 大藏善行 菅原道眞	

10) 헤이안시대의 우다(宇多)천황(재위 887~897년)부터 에도시대까지를 대상, 편년체로 항목을 세워 전거 사료를 열거. 1901년부터 현재까지 간행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사 자료집.

11) 도쿄대학의 사료편찬소의 전신 사료편찬과(史料編纂掛) 시대였던 1901년7월부터 간행 시작,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고문서를 수록한 고문서집으로 내용은 「편년문서」·「이에와케(家わけ)문서」·「막말외국관계문서」의 3부로 이루어짐.

이었는데 그에 대해 살필 것이다. 제IV장에서는 구로이타의 역사인식의 변환을 그의 통사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초판, 개정판, 정정판의 목차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 II. 최근의 구로이타에 관한 연구 개관

앞에서도 언급했던 전고에서 구로이타(1874~1946년)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 특히 ‘조선사편찬의 수사사업과 그 의의’에 대해 논구한 적이 있다. 그때 맺음말 부분에서 ‘구로이타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적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12)</sup>

먼저, 구로이타의 학문적 활동기간의 전체상에 대해서 이다. “첫 번째,

---

12) 주1) 논문(2009), 122~124쪽 참조. 이하의 연구 성과들은 전고에서 누락되었던 것들과, 2009년 이후의 관련 성과물들을 적시한 것이다. 같이 참고하기를 바란다. 김용섭,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관: 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사상계』 117, 1963; 박결순, 『식민지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2004;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최혜주,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경인문화사, 2010; 이정빈,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0; 沈熙燦, 『朝鮮史編修會의思想史的考察』, 立命館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한국사학사학회, 2013; 정상우, 『식민지에서 제국 일본의 역사편찬사업』, 『한국사연구』 160, 한국사연구회, 2013; 김종복,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위한 예비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윤해동 외,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2016; 데시마 다카히로,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의 외교사·대외관계사에 대하여』, 『日本思想』 3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6; 심희찬, 『일본 근대 역사학의 성립·발전과 ‘조선’의 위상-실증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그 그림자-』, 『동서인문학』 52, 인문과학연구소, 2016; 강은영,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의 한국사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수사사업(修史事業)』, 『역사학연구』 66, 호남사학회, 2017; 박지영,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만주역사조사부』, 『日本思想』 35,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8; 세키네 히데유키, 『일본인의 형성과 한반도 도래설』, 경인문화사, 2020 참조.

1896~1907년은 일본에서의 고문서학의 체계화와 고전적의 출판과 보급에 힘쓴 전형적인 제국대학의 학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1908~1910년의 기간 중에 그 당시 쉽지 않았던 구라파에 유학을 한 구로이타는 유럽 각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11~1936년은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얻어진 일본에서의 고문서학과 고전적의 체계적인 보급과, 두 번째의 유럽에서의 선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의 진열 및 사적 보호의 노하우를 일본과 조선에서 특히 조선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시기이다. 특히 구로이타의 40대 이후의 중진학자로서의 활동이 1915년 조선을 처음 방문한 이래 16년간에 걸친 ‘조선사편수’(1922~38년)와 ‘조선고적조사’ 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났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로이타의 학문적 활동기간을 삼분하자면 그의 존재감은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한국) 사학계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가 중점을 둔 조선사 사료 편찬의 의도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특히 조선사 편찬에서 보여준 그의 확고한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조선사에 실릴 수 없는 비과학적인 요소로 치부. 구로이타에게 있어 조선사는 공명정대하고 권위에 넘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서여야 했다. 그렇다면 구로이타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의 편찬 방침에 따르는 한, 식민지 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그 존재할 곳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사 편찬은 철저하게 조선의 일본화를 달성하기 위한 원대한 기간시설의 레일을 부설하는 사업이어야 했다. 이러한 의도는 조선사만이 아니라 자국사인 일본사 편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즉, 천황 중심의 사료 편찬에 편찬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일 양국 사학계에서의 구로이타의 영향력은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의 식민사학자들 중에서도 구로이타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의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가 아닌가 하고 여겨진다. 그리고 더 나아

가 구로이타의 흔적은 어디까지나 '일본중심주의'<sup>13)</sup>에 입각한 것이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구로이타의 사료에 입각한 고문서학의 확립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그의 경험의 확산은 조선사의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인 사료를 취사선택했고 재배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사료의 편향적이고 의도된 재단은 조선사 연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로이타의 작업은 식민지조선의 본질적인 지배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구로이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로이타가 일본 만의 근대역사학을 집대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식민지 조선, 나아가 이후 해방 이후의 한국의 근대역사학마저 재단(裁斷)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편으로,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에는 조선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유의미한 지적이 있다.<sup>14)</sup> 특히 일본의 근대사학사에서 전전의 조선사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조선사가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과 그 내적 논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 결과는 각각의 시기에서 ①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과정에서 조선사를 폭력적으로 매개하는 작업을 거친 점, ②이후 강화된 실증주의의 주장은 식민주의의 이념과 결부된 것, ③내재된 천황 숭배에 대한 논리가 전쟁과 함께 그 폭력성이 극단으로 치달은 점 등이라고 한다.

다만, 이상의 관점이 대개 구로이타와 식민지 조선과의 관련이었다면,

13) '일본중심주의'의 실태와 이념을 통시대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로는, 김현구 외,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14) 주2) 심희찬(2016)의 “1880년대~1910년대; 근대 역사학의 여명기와 일선동조론, 1910년대~30년대; 실증주의 강화와 그 임계, 1930년대~45년; 세계사의 전개와 파시즘” 부분 참조.

최근에는 일본근대역사학과 구로이타에 대한 원초적이고 전면적인 접근이 보인다.<sup>15)</sup> 마침 이것은 현재의 본인의 관심인 구로이타가 추구했던 일본근대역사학의 원점 추구라는 면과도 상통한다.<sup>16)</sup>

먼저 요시카와 리사(Lisa Yoshikawa)의 구로이타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학위논문을 쓴 요시카와가 주목하는 구로이타에 대한 평가는 일본 내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요시카와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구로이타 연구에 대한 평가가 미진한 이유는 구로이타의 제자들에 의해 집단적인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sup>17)</sup> 그러한 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학사(史學史)에 일가가 있던 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 1900~1995년)<sup>18)</sup>를 들고 있다.

이른바 ‘오쿠보사학사’는 전후 일본 국내학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도 정설화 되고 있다. 오쿠보는 ‘아카데미즘사학’의 주류의 학문적 카르텔에서 생각할 때, 3세대 그룹(坂本太郎, 大久保利謙, 平泉澄 등)에 속하는 인물이다. 오쿠보에 따르면, 제1세대 그룹(重野安釋, 久米邦武, 星野恒 등)은 일본근대역사학의 도입기에 국가적 탄압에 맞선 학문적 순교자로 여기면서, 2세대 그룹(黑板勝美, 三上參次, 喜田貞吉, 白鳥庫吉, 辻善之助, 三浦周行 등)은 현재의 ‘사료편찬소’를 중심으로 묵묵히 사료수집과 고증에 전념함으로써 전후 역사학의 수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2세대에 대한 오쿠보의 평가는 구로이타를 직계 스승으로 둔 그에게는 이른바 ‘스승

15) 주16)부터 주19) 참조.

16) 본인의 근래의 발표, 『일본근대역사학』 성립의 원류를 찾아-古文書學의 계보를 중심으로-, (홍익인간재단 제1차 컨퍼런스자료집, 서울고대, 2019년2월16일)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

17) ヨシカワ・リサ, 『近代日本の国家形成と歴史学: 黑板勝美を通じて』, 『立教大学日本学研究所年報』 14-15, 2016, 15~25쪽; Lisa Yoshikawa, 『Making History Matter: Kuroita Katsumi and the Construction of Imperial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Asia Center, 2017 참조.

18) 大久保利謙, 『ゆがめられた歴史』, 『大久保利謙著作集7 日本近代史学の成立』, 吉川弘文館, 1988(초출은 1952) 참조.



감추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1세대 그룹에 대한 강한 스포트라이트는 2세대 그룹을 어둠 속에 숨기기 쉽게 만든다.

한편, 요시카와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히로키 다카시(廣木尙)의 성과 물에서도 오쿠보의 구로이타에 대한 평가는 확인되고 있다.<sup>19)</sup> 그러면서도 히로키가 주목한 것은 구로이타가 집필한 통사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이다. 다시 말해, 『국사의 연구』의 초판과 재판 사이에 발생한 '남북조정윤 문제'<sup>20)</sup>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해결점을 찾는 것에서 구로이타의 탁월(卓越)성을 찾고 있다. 그 결과, 구로이타를 '아카데미즘사학'의 탁월성의 재확립을 꾀한 공적을 높이 사 그를 '아카데미즘사학'의 '대표적 개인'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구로이타의 평가에 대한 히로키의 의중이 애매하다고 세키네 히로유키는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고 있다.<sup>21)</sup>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분석한 세키네는 구로이타를 '황국사관론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 앞에서 언급한 아카데미즘사학의 3세대에는 명실상부한 '황국사관론'의 집대성자인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1895~1984년)가 보인다.<sup>22)</sup> 세키네가 구로이타를 '황국사관론자'라고 하는 데에는 '기기(記紀)신화'<sup>23)</sup>에 대한 기본적인

19) 廣木尙, 『黑板の通史叙述 : 『アカデミズム史学』による卓越化の技法と『国民史』, 『日本史研究』 624号, 2014, 1~32쪽 참조.

20) 일본의 남북조[南北朝]시대(1336~1392년) 중 남조와 북조의 어디를 정통으로 할 것인가의 논쟁. 본문 제Ⅲ장의 제2절 참조.

21) 세키네 히데유키,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와 황국사관』, 『동아시아고대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21.03.20.), 6~26쪽 참조.

22) 물론, 같은 3세대 '아카데미즘사학' 그룹이라고 해서 오쿠보와 히라이즈미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구로이타가 히라이즈미를 지도했다고 해서 구로이타를 황국사관론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히라이즈미의 대표적인 국수주의적 업적은 32년 『국사학의 골수(國史学の骨髄)』, 34년 『건무중흥의 본뜻(建武中興の本義)』, 36년 『만물유전(万物流転)』 등. 그의 '황국사관(일본역사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은 당시의 청년장교 등에 영향을 미쳤다. 패전 후에는 대학에서 물러나 향리에 은거했다.

23)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서두에 보이는 천황가의 지배의 근원과 왕

시각을 둘러싼 고증학자에 대한 비판 및 『국사의 연구』에 보이는 천황 중심의 역사관과 왜곡된 고대한국사관 등의 전거가 있다.<sup>24)</sup>

다만, 이상의 최신의 어느 연구 성과를 찾아보아도 구로이타가 의도했던 일본근대역사학의 원점 추구라는 목표를 추급하기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구로이타를 계속 식민지조선과의 관계에만 가둬놓고서는 구로이타 사고의 원점을 해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구로이타가 식민지조선의 문제에 뛰어든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고, 나아가 그의 사고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의 히로키의 방법론이 적잖이 참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로이타가 세 번이나 바꾸어 쓴 자신의 통사 『국사의 연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구로이타가 의도했던 그리고 구로이타의 사고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Ⅳ장에서는 『국사의 연구』의 초판(1908년), 재판(총론 13년, 각설 18년), 정정판(총설 31, 가설 상 32년, 각설 하 36년)의 기술의 변화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그에 앞서 다음 제Ⅲ장에서는 ‘아카데미즘사학’의 원 뿌리를 좀 더 탐색해 보기로 하자.

### Ⅲ. ‘일본근대역사학’과 ‘아카데미즘사학’

#### 1. 근세 이래의 편수사업

메이지(明治)유신은 근대일본의 정치 지배질서의 대변혁만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질서 구조의 대전환을 불러일으켰다.<sup>25)</sup> 유신정부는 ‘왕

---

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요소가 강한 신화.

24) 崔在錫, 『黑板勝美의 日本 古代史論 批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3-1, 1990, 127~146쪽 참조.

25) 송완범, 『메이지(明治)유신과 다이카(大化)개신』, 『日本思想』 36,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9 참조.

정복고'의 기치와 함께 '사민평등' 및 '문명개화'를 내걸었다. 다만, 이러한 신·구(新·舊)의 이중적인 입장은 여러 부분에서 가치의 혼란을 초래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혼란은 국가관이나 역사관에도 존재했다.<sup>26)</sup> 하지만 메이지유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메이지유신의 전사를 살펴보면서 이전 시기의 다양한 수사사업의 전통과 관련하여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메이지 초년에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년)는 “이전에 존재한 역사서는 왕실의 계보와 위정자의 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일본국의 역사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역사일 뿐”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근세 초기인 17세기 중엽 경부터 역사의 편수 사업은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년)<sup>27)</sup>의 『본조통감(本朝通鑑)』<sup>28)</sup>, 미토(水戸)번에 의한 『대일본사(大日本史)』<sup>29)</sup>,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년)<sup>30)</sup>의 『중조사실(中朝事實)』<sup>31)</sup>을 위시해 고문서를 이용한 『무가시기(武家時記)』<sup>32)</sup>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년)<sup>33)</sup>에 의한 『고사통(古事通)』<sup>34)</sup>, 『독사여론(讀史余論)』<sup>35)</sup> 등의 작업이 이루어

26)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저/하중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년 참조. 본 절의 전체적인 입안 및 시차적 정리는 본서의 내용에 의존한 바가 크다.

27) 에도시대 초기의 주자학과 유학자로 하야시 집안의 종조로 羅山은 호이다.

28) 에도막부에 의해 편찬된 한문편년체의 역사서로 1670년(寬文10)에 성립되었으며 전체 326권인 일본통사로, 신대(神代)부터 후양성(後陽成)천황(재위 1586~1611년)까지를 대상.

29) 신무(神武)천황부터 후소송(後小松)천황까지, 엄밀히는 남북조가 통일된 1392년까지를 획기로 하는 제왕의 치세를 기록. 전체 397권 226책(목록 5권).

30) 에도시대 전기의 유학자로 군학(軍學)자. 병법 및 고학과의 선구자로 지구가 둥글다는 설을 지지.

31) 야마가 소코가 지은 존왕사상의 역사서로 1669년(寬文9)에 완성 전 2권이며 부록1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중국이 중화를 주장하지만 일본이야말로 진짜 중화라고 주장.

32) 『무사기(武事紀)』라고 하는 역사서로 58권이며 1673년(延寶1)에 성립(皇統要略과 武統要略의 두 장으로 구성). 무에 의한 정치의 시작을 신무천황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무가정치 출현의 필연성을 서술.

33) 에도시대 중기의 무사이며 정치가이고 주자학자, 막부 정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덕의 치(正徳の治)라는 한 시기를 담당.

졌다.

한편, 18세기 이후의 유학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sup>36)</sup>에 의해 ‘정치제도의 변천을 명백히 하는 일’이 역사연구의 주안이 되었고, 나아가 청(淸)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인물론보다는 사회제도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토 진사이(伊藤仁齋)<sup>37)</sup>의 아들인 도가이(東涯)의 『제도통(制度通)』<sup>38)</sup>은 중국과 일본의 고래부터의 정치제도의 변천을 개관한 것이다. 이어 1848년에는 다테 치히로(伊達千廣, 1802~1877년)의 『대세삼전고(大勢三轉考)』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대화(大化)개신과 가마쿠라막부를 경계로 하여 골(骨)·직(職)·명(名)의 시대로 삼분한 것이 특징이다.<sup>39)</sup> 또한 미토번의 『대일본사』는 에도시대 전기는 본기와 열전의 인물중심의 정치사였다면, 19세기는 지와 표의 제도사·경제사·문화사가 눈에 띈다. 이상과 같은 에도시대의 역사를 편찬하고자 하는 편수 사업을 통해 양성된 지적 흐름이 메이지 초기에 다음의 몇 가지 계통으로 남게 된다.<sup>40)</sup>

- 
- 34) 고대사 해석서로 1716년(享保元)에 성립되었으며 고대의 신들을 사람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려 노력.
- 35) 일본정치사이며 주자학의 입장에서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의 영향을 받아 부덕이지만 신기(神器)를 가진 후제호(後醍醐天皇)과 남조를 정통으로 하는 한편, 인물로서는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덕을 변호하는 등 역사적 입장에 혼선이 보임.
- 36) 에도시대 중기의 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문헌학자. 고대의 언어와 제도문물을 중시하는 「고문사학(古文辭學)」을 표방. 주희를 고대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사이(仁齋)마저도 비판.
- 37) 에도시대 전기에 활약한 유학자이자 사상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윤리와 인간상을 탐구하고 제시하며 고학을 제창.
- 38) 일본의 역사서로 중국 제도의 연혁 및 이와 대응하는 일본의 제도와와의 관계를 강 항목별로 기술한 책으로 전 13권.
- 39) 송환범, 앞의 글, 2019, 55~75쪽 참조.
- 40)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저/하중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1~352쪽 참조. 첫째, 도쿠가와(德川) 이래의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존왕론을 주장한 유교계 이데올로기 그룹으로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1818~1891년) 등. 둘째, 유교에 바탕을 두면서 청의 고증학을 흡수하여 봉건적 명분론을 극복하려 한 사족 출신의 한학자 그룹으로 나중 제국대학의 사료편찬 사업을 주도하면서 실증주의에 기초한 ‘아카데미즘사학’을 구축.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釋, 1827~1910년),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년),

이상의 네 가지 경향 중에 근세 이래의 한학에 기반을 두고 고문서 등의 역사 자료에 입각하는 편수 작업의 정통은 주로, 두 번째의 봉건적 명분론을 극복하려 한 사족 출신의 한학자 그룹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카데미즘사학'에 대해서는 봉건적이며 국제론적 이데올로기와의 대항관계로 인한 외적 압박에 의한 변질, 즉 '왜곡된 역사'라는 전통적인 평가<sup>41)</sup>가 있는 반면, 국제론적 성격이 본질적 속성으로서 다른 이데올로기적 언설과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처럼 현재는 양면으로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42)</sup>

한편, 메이지 초기의 혼란의 시기는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근대적인 수사기관의 정비와 함께 관련 제도가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sup>43)</sup> 밑줄 친 연도는 근대일본의 수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1839-1917년) 등. 셋째, 국학과 연계된 신도(神道)계 학자들로 무가 출신들이 아니며 막번 체제 하의 비주류들로, 나중에 신도(神道)의 국교화 운동 및 신화(神話)를 강조하는 복고적 역사관을 주장하며 가장 우익적인 경향을 고수. 중심인물은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년)이다. 넷째, 문명사와 개화사의 흐름으로, 난학(蘭學)과 영학(英學)의 전통으로 무장하고 구라파를 방문하여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룹. 후쿠자와,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년) 등.

41) 주18) 참조.

42) 본고의 제II장 참조.

43) 1869년2월; 신정부의 가이세이(開成)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막부의 양학 연구기관인 가이세이쇼(開成所)와 쇼헤이자카(昌平坂)학문소로부터 시작.

1869년4월, 메이지천황의 친필 서한에 의해 국가 통치의 정통성으로서의 정사 편찬 방침

1869년7월, 태정관제; 10월 국사편집국 개설, 12월 폐쇄

1870년2월, 태정관 정원에 기록편집계 설치

1872년10월, 역사과와 지지(地誌)과 설치

※1872년12월3일을 1873년1월1일로 개력(음력에서 양력으로)하고 있다.

1875년4월, 역사과에 수사국(修史局) 80인, 내무성에 지지과

1877년1월, 수사관 축소 42명, 원인은 수사국에서 국사편집 방침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 이로 인해 국학계통 대신에 한학계의 구매 보강

1882년 정사편찬 본격적; 시게노 야스쓰구 등 한학계통의 고증학자들 득세

1885년12월, 수사관 폐지

1886년1월 내각 임시수사국 설치, 3월에 동경대학이 제국대학령에 의해 제국대학으로.

1887년2월 문과대 독일의 루트비히 랑케의 제자인 리스 초빙, 9월에는 제국대학에 주로

사사업이 본격화되는 중에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때를 표시한 것이다.

결국, 도쿠토미 소호가 메이지 30년대를 ‘덴포(天保)의 노인’(1830~1843년에 태어나 메이지유신을 이끈 세대)에서 ‘메이지의 청년’으로 대체되었다고 표현<sup>44)</sup>하듯이 이제 세상은 ‘아카데미즘사학’ 제2세대들인 구로이타를 위시해 미카미, 쓰지, 시라토리, 미우라 등이 활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구로이타가 ‘아카데미즘사학’의 중추로서 활약하는 1910년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 2. 남북조정윤문제(南北朝正閏問題)

‘아카데미즘사학’에 큰 위기감을 안겨준 사건은 두 번 있었다. 앞장에서 언급한 아카데미즘사학의 1세대 때의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년)와 2세대의 기타 사다(테이)키치(喜田貞吉, 1871~1939년) 두 사람은 초창기 일본근대역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필화(筆禍)사건의 장본인이다. 전자는 ‘신도는 제천의 오래된 풍속사건’<sup>45)</sup> 후자는 ‘남북조정윤문

---

서양사를 가르치는 사학과 설치, 10월 제국대학 내 임시수사국이 임시편년사편찬계로.  
1989년6월, 제국대학 국사과 설치, 11월 사학회 창립, 12월 『사학회잡지』 창간  
1890년10월, 『교육칙어』 발표

1891년10~12월 『사학회잡지』 23-25호에 구메의 논문 “신도는 제천의 옛 풍속” 발표

1892년2월, 신도 국학과의 반격, 3월 구메 휴직(久米邦武 필화사건)

1893년4월, 『대일본편년사』 사업 중단, 사지편찬계 폐지; ‘아카데미즘사학’의 후퇴

1895년4월, 사료편찬계(→사료편찬소) 설치, 정사 편찬 대신에 사료수집과 사료편찬: 호시노(星野), 미카미(三上), 다나카 요시나리(田中義成)가 사료편찬위원

1901년2월, [대일본사료], [대일본고문서] 일부 간행; 사료의 독점체제 성립, 편년체식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가 우위, 고문서학 연구가 진전(구로이타가 동경제국대학의 사료편찬원으로 부임)

44)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저/하중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1~352쪽 참조.

45) 1891년에 『사학회잡지』에 발표한 구메(久米)의 논문 『신도는 제천의 오래된 풍속(神道八祭天ノ古俗)』이 1892년에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가 주재하는 『史海』에 다시 실리면서 사

제<sup>46)</sup>와 관계한다. 다시 말해, 1892년의 '구메 필화사건'과 1911년의 '남북조 정운문제'일 것이다.

약 20년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은 특히 '아카데미즘사학'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의 충격으로 '아카데미즘역사학'의 제1세대가 큰 타격을 입고 후퇴했다면, 후자는 '아카데미즘역사학'의 제2세대의 존망을 위협하는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구로이타에 의해 '아카데미즘사학'의 입지를 세우는데 기여한 '남북조정운 사건'이다.

1911년에 발생한 '남북조정운문제'는 일본의 남북조(南北朝)시대<sup>47)</sup>에서 남조와 북조의 어디를 정통으로 할 것인가의 논쟁을 이룬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남북양조'를 병기해서 기술한 당시의 국정교과서였던 『심상소학 일본역사(尋常小學日本歷史)』가 '제국의회'에서 문제시되어 정부가 남조를 정통으로 하는 정치적 조치를 취한 일을 가리킨다.<sup>48)</sup>

회적 문제가 되어 구메가 결국에 제국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는 사건. 이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국제와의 관련에 대해 파문을 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학문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관학아카데미즘의 제1세대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 외 구메에 대해서는 김보한,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35~50쪽 참조.

46) 우선 정운(正閏)의 사전적 의미는 바른 계통과 그렇지 않은 계통을 뜻함. 다른 말로 정통이나 아니냐의 의미. 『南北朝正閏論』에 관한 자세한 성과는 『特集:南北朝正閏問題100年』, 『歴史評論』 740, 2011 참조.

47) 1336년부터 1392년까지의 약 57년간에 걸쳐 가마쿠라(鎌倉)시대와 무로마치(室町)시대 사이에 위치한 시대로 독립된 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뒤의 무로마치시대를 '협의의 무로마치'라고 하고, 아니면 이 시대를 뒤의 무로마치시대에 포함시키면 '광의의 무로마치'라고도 부른다.

48) 원래 이 문제는 학자의 개인 의견 정도로 치부될 성격이었지만, 정치문제화한 계기는 1911년 1월19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사설에서 "만약 양조의 대립을 허락하면 국가가 이미 분열된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는 천하의 실패(失態)로 문부성의 실패는 두고 볼 수 없다" "일본제국에서 인격의 판정 기준은 지식덕행의 우열보다 국민적 정조이다. 다시 말해 대의명분의 여하에 따른다."는 주장과 야당인 입헌국민당(당수 犬養毅)이 제2차 가쓰라(桂)내각을 규탄하는 소재가 되어 급격히 정치 문제화되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여론에 굴복하여 교과서 개정을 약속하고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기타를 휴직 처분한다.

그럼 구로이타는 어떻게 이 위기와 어떻게 대면하고 있었던가? 먼저 **【구로이타 연보】** 49) 중 관련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다음의 밑줄 친 바로는 구로이타의 행로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1874(明治7)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현 하사미(波佐見)초 출생
▶1892년	구메(久米邦武) 필화사진
1896(明治29)	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과 졸업, 대학원 입학, 제국대학 사료편찬 촉탁, 『徵古文書甲集』 간행
1898(明治31)	『徵古文書乙集』 간행
1901(明治34)	동경제국대학 사료편찬원
1902(明治35)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강사 촉탁
1903(明治36)	학위 논문 『日本古文書樣式論』 탈고
1905(明治38)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조교수, 사료편찬관/음사보호조약, 통감부 설치
1908(明治41)	유럽 여행,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초판 간행/창덕궁 동원에 박물관 설치
1910(明治43)	귀국/한일병탄
▶1911(明治44)	‘남북조정윤문제’ 발생, 기타(喜田) 책임지고 사임
1913(大正2)	『국사의 연구』 재판 간행, 『국사대계육국사;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문덕실록』 간행

‘남북조정윤문제’가 끼친 영향<sup>50)</sup>은 구로이타의 대학 입학 당시에 일어난

49) 주1) 논문 참조. 구로이타의 연보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된 바가 있지만, 구로이타의 생애와 조선과의 관련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연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연보들을 참조하면서 구로이타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와 관계가 깊은 것에 착안하여 구로이타의 대표적 통사인 『국사의 연구』 간행 및 식민지 조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50) 나중에 ‘남북조정윤문제’는 이후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주로 근대천황제국가가 학문과 교육에 강권적으로 개입한 대표적 사례로서 알려진다. 최근에는 ‘남북조정윤문제’에 대해 국가에 의한 개입이라는 단선적 소재만이 아니라, 역사학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내재적



‘구메의 필화사건’과는 유가 다른 것이었다. 그 이유는 ‘구메 사건’은 구로이타가 대학 신입생 때의 일로 그의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위치였다면, ‘기타 사건’은 본인이 아카데미즘사학의 구현자, 동경제국대학의 일원이었던 당시의 바로 자신의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구로이타는 발 빠르게 대응한다.

문제가 불거진 지 약 1달 뒤, 1911년 2월18일자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의 ‘남북조정윤문제 상조(尙早)론’에서 구로이타는 남조정통론을 지지하면서도, 아직 결론은 판단유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 주권설’을 내세우며, ‘정윤문제’의 쟁점을 ‘아카데미즘사학’ 자체의 적부가 아니라, 아카데미즘사학 내의 학설의 적부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에 의해 역사전문가의 입장과 남조정통론을 통합하자고 주장한다.<sup>51)</sup>

당시의 정부는 ‘요시노(吉野)조 사관’<sup>52)</sup>이라 하여 국체사로서의 ‘국민사’라는 남조정통론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데올로기 교화의 도구로서 전화한 것으로 설명하려는데 비해, 오히려 구로이타는 ‘요시노조 사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 구로이타는 무가가 중흥한 ‘남북조시대’는 남조의 거점이 요시노 지역 만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 방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노에 한정된 천황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미치는 천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란하기까지 한 구로이타의 주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현실적 경향’의 역사가였는지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구로이타가 얼마나 ‘아카데미즘사학’의 수호자였는지가 드러난다. 결국 ‘아카데미즘사학’의 구세주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후역사학’이 구로이타에게 얼마나 크게 신세를 지고 있는지 알만하다.

---

문제로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대일본사』의 기술을 근거로 ‘삼종의 신기’를 소유하고 있던 남조가 정통이라고 한다. 주49) 참조.

51) 廣木尙, 『黑板の通史叙述 : 『アカデミズム史学』による卓越化の技法と『国民史』』, 『日本史研究』 624号, 2014, 1~32쪽 참조.

52) ‘남북조시대’는 당시 정통이라고 여긴 남조가 나라의 남쪽 요시노(吉野)에 있었던 것에 빗대어 ‘요시노조(吉野朝)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설하고 그 다음에 구로이타가 취한 다음 행동이 바로 1913년의 그의 총서 『국사의 연구』의 재판 간행이다. 다시 말해, ‘남북조정운문제’의 전과 후의 구로이타의 역사 서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바로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초판과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그 실태를 들여다보자.

#### IV. 구로이타와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다음의 표는 모두 세 차례 출판된 구로이타의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를 목차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사의 연구』 초판은 한 권이며 1908년에 출간되었고, 재정(再訂)판은 두 권으로 총설(總說)은 1913년, 각설(各設)은 1918년에 출간되었으며, 삼정(三訂)판은 모두 세 권으로 총설은 1931년, 각설의 상권은 1932년, 각설의 하권은 1936년에 간행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11년의 ‘남북조정운문제’를 전후로 간행된 『국사의 연구』 초판과 재정판의 내용 비교가 선결이다. 왜냐하면, 구로이타의 역사 서술에 대한 심경 변화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하에서는 히로키의 설을 참조하면서 구로이타가 자기 논리의 변경을 각각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표: 『국사의 연구』 목차 비교】

	초판(1908년)	재정판(총 13/각 18년)	정정판(총 31/각 32,36년)
신대	神代	神代	神代
씨족/씨성	제정일치기 왕화확장기 韓土복속기 臣連擅權기	大和천도기 왕화확장기 韓土복속기 臣連擅權기	大和개도시대 皇化발전시대 韓土복속시대 臣連천권시대 法興肇憲시대

율령/공가	율령제정기 나라조정기 평안천도기 등씨융성기 등씨천권기 원청정치기 평씨천권기	율령修定기 나라조정기 평안천도기 등씨융성기 등씨천권기 원청정치기	法興肇憲시대 改新修制시대 나라시대 평안천도시대 섭관신치시대 섭관中停시대 섭관영화시대 상황실권시대 保元平治시대
무가	鎌倉무가기(원씨장군 기/北條집권기) 京都무가기(남북양조 기/室町융성기/실정쇠 망기) 織田豊臣기 江戸무가기(막부창업 기/문예중흥기/막부극 성기/막부쇠망기)	平家시대 鎌倉시대(막부창업기/막 부융성기/막부쇠망기) 公家中興시대(관동도벌 기/진무중흥기/남방巡狩 기) 室町시대(室町융성기/막 부쇠망기/군웅할거기) 織田시대(安土시대) 豊臣시대(桃山시대) 江戸시대(막부창업기/막 부수식기/막부중흥기/막 부극성기/막부쇠망기)	古무가시대 保元平治시대 六波羅시대(平家전성/諸源 발흥) 鎌倉시대(諸源발흥/源씨장 군/藤씨장군/宮장군) 皇家中興시대(正中元弘/경 도친정/남방巡狩) 中무가시대 남방巡狩시대 室町시대(막부천권/막부실 위/응인문명/군웅쟁패) 新무가시대 군웅쟁패시대 織田시대 豊臣시대 徳川시대(막부창시/막부수 식/막부긴장/막부미봉/양 이개항)
입헌/헌정	입헌	헌정시대	헌정시대(양이개항/명치/ 대정/소화)

\*층은 '층설' 각은 '각설'의 약자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로, 시대구분의 문제이다. 구로이타의 시대구분은 5단계이다. 신대(神代), 씨족/씨성, 율령/공가, 무가, 입헌/헌정 의 5단계는 현재의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5단계와 차이는 많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이 닮았다. 구로

이타 당시에는 현대를 상정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 대신에 신화의 시대로서의 신대를 설정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와의 관련이 많은 씨족/씨성 단계의 서술이다. 초판에서 ‘제정일치’기를 두었던 것에 비해 재정판과 정정판은 ‘야마토(大和)시대’부터 시작하고 있다. 초판에서 ‘제정일치’기를 상정했다는 것은 신화의 시기인 신대 이후에 있어서 국가의 초기단계를 설정했다는 의미인데, 돌연 재정판부터는 제정일치기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제정일치기를 삭제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셋째로, 같은 씨족/씨성 단계의 서술에서 눈에 띄는 것은 ‘韓土복속기’의 설정이다. 구로이타의 역사서술에서 ‘韓土복속기’는 초판부터 변함이 없다. 이는 말 그대로 한반도를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취했다는 말이 되며, 이는 예나 저나 변함없는 일본사의 레토릭이다. ‘韓土복속기’를 설정한 이유로는 1911년의 ‘남북조정윤문제’ 이외의 계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1910년의 ‘한일병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구로이타의 역사 서술의 변화에 깔린 저류에 식민지조선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결국 초판 출간의 1908년의 단계 이전부터 고대의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일본서기』 이래의 강고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넷째로, 초판의 무가기가 재정판과 삼정판의 각각 공가(公家), 황가(皇家)중흥시대로 바뀐 것이다. 더 나아가 초판의 무가기는 가마쿠라(鎌倉)무가, 교토(京都)무가, 에도(江戸)무가기로 나누고 있는 것에 비해, 재정판에서는 헤이(平)가, 가마쿠라, 공가중흥, 무로마치, 오다(織田), 도요토미(豊臣), 에도시대로 나누고 있다. 이를 정정판에서는 우선 古무가, 中무가, 新무가로 나누고 각각을 古무가는 保元平治, 六波羅시대(平家전성/源씨 발흥), 가마쿠라시대(源씨 발흥/源씨장군/藤씨장군/宮장군), 皇家中興시대(正中元弘/경도친정/남방순수)로 세분하며, 中무가는 남방순수시대, 室町시대(막부전권/막부실위/응인문명/군웅쟁패)로, 新무가는 다시 군웅쟁패시대, 오다

시대, 도여토미시대, 도쿠가와(徳天)시대(막부창시/막부수식/막부긴장/막부미봉/양이개항)로 나누고 있다.

설명이 조금 복잡스러운 것같이 보여도 맥락으로 보면 간단하다. 먼저 앞의 시대구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현재 시대구분과 같이 중세를 가마쿠라막부와 무로마치막부로 할당하고, 근세를 에도막부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보자. 초판은 '남북조정운문제'의 본령인 '남북조시대'(1336[1331 혹은 1333년 설]~1392년)를 무로마치막부 내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비해, 재정판과 정정판에서는 '남북조시대'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나아가 재정판에서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정정판에서는 古무가와 中무가를 연결하는 연속선상의 시대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도 남북조시대를 가마쿠라막부와 무로마치막부의 중간에 있는 독립된 시대로 구별하는 건지, 아니면 광의의 무로마치막부시대라고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벌어지는 것과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구로이타의 역사 서술의 인식이 드러나는 데, 특히 1911년의 '남북조정운문제'를 둘러싸고 특이하게 전개된 것이라 하면 역시 네 번째의 무가, 공가, 황가의 차이로 보는 '남북조시대'의 이해 일 것이다. 왜 구로이타가 초판, 재정판, 정정판에서 같은 시대를 각각 무가, 공가, 황가로 구분한 것인가. 한 사람의 역사 서술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가와 황가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때, 무가에서 공가로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히로키에 따르면, 재정판의 선회 축은 초판에서 "황실쇠퇴시대/남조정통, 남북조의 병립, 무가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재정판에서는 "고다이코(後醍醐)천황(재위 1318~1331~1339년)의 입장에서라면 무가의 부정이며 공가의 중흥"이었다고 이해한다. 또한 주권자인 천황에 의해 정치의 위임자가 된 무사<sup>53)</sup>는 천황찬미와 상무가 결합한 존재이며, 원래의 일본 국민은

53) 한일관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동북의 이민족 에미시(蝦夷) 문제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면서 정토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이것이 무사도의 시작이라고 한다. 무사를 천황의 대항

원초적 무사성을 갖는 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구로이타는 황실 중심사상을 부상시키는 것에 의해 절대적 주권은 천황에게만 있다고 하고, ‘공가중흥시대’의 조정이 무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구로이타는 ‘아카데미즘사학’을 국체를 수호하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명실상부한 ‘국민사’로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자기 위치 확립에 성공했다고 한다.<sup>54)</sup>

이상의 견해를 포함하여 조금 억측일지는 모르나, 구로이타의 사고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있다. 즉, 구로이타의 역사 서술의 변경의 밑바닥에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메이지 천황의 ‘수사의 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당시의 ‘아카데미즘사학’이 놓치고 있던 천황의 뜻을 이제야 비로소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 천황의 본심은 ‘무가시대’ 700년간의 ‘수사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천황이 권력을 행사한 고대의 『삼대실록』 이후의 역사는 모두 ‘무가시대’에 작성한 것으로 천황과 국민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남북조시대의 히로인 고다이코(後醍醐)천황이 가장 이상적인 때로 여긴 시대는 다이코(醍醐)천황(재위 897~930년)의 치세였다. 그래서 자신의 시호를 다이코의 다음 시대라고 하여 고다이코로 삼은 것이다. 다시금 생각해 보자면 다이코천황의 치세는 실제의 치세가 후대가 이상으로 여길 시대였는지 아닌지는 별개로, 고대의 어느 시대, 『삼대실록』이 만들어지는 때를 이상으로 삼은 것이다. 무가시대로부터 다시 천황 친정을 기도

---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동국의 병사로 이해하고 있다. 廣木尙, 『黒板の通史叙述: 『アカデミズム史学』による卓越化の技法と『国民史』』, 『日本史研究』 624号, 2014, 1~32쪽 참조.

54) 이러한 주장의 변경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는 헌법학자이며 구로이타의 친우인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 1866~1947년)의 설, 즉 ‘절대적주권설’에 서면 정치상의 실권은 위임 가능하고, 오히려 고난의 시대에서 ‘대의명분론’이 발흥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황실중심사상’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학과 역사학의 분업관계라 할 수 있다. 廣木尙, 『黒板の通史叙述: 『アカデミズム史学』による卓越化の技法と『国民史』』, 『日本史研究』 624号, 2014, 1~32쪽 참조.

한 14세기의 고다이고천황, 이후 길고도 긴 무가시대를 거쳐 다시 찾은 천황 친정의 시대, 즉 19세기말의 메이지 천황의 입장에서는 무가기의 편수사업은 부정하고 싶은 것이었는지 모른다.<sup>55)</sup>

이제야 구로이타는 '남북조정운문제'를 기회로 천황의 본심을 이해하게 되고 '무가중시'에서 '공가중흥'이라는 '아카데미즘사학'의 논리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무가' 대신 '공가 혹은 황가'의 역사로서 자신의 통사를 거듭 재배열하게 것이다. 이러한 구로이타의 변심의 내막을 종래의 연구자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V. 맺음말

이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시작된 것같이 보여도 유신 이전의 근세 초기부터 다양한 수사사업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말을 경계로 일본근대역사학이 시작되었다는 이해는 온당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일본근대역사학, 즉 '아카데미즘사학'에는 필화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중 1911년의 '남북조정운문제'는 구로이타를 포함한 2세대 '아카데미즘사학'의 존망에 관계하는 데 너무나도 불리한 것이었다. 이에 구로이타는 전면에서 '아카데미즘사학'의 수호자로 나선다.

셋째로, 그때 구로이타가 내세운 논리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국사의 연구』 초판과 재정판에 보이는 몇 가지 차이점이다. 그 중 가장 백미는 '남북조정운문제'의 배경인 남북조시대를 무가시대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공가사회로 치환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무가에 준 권력은 원(原) 권력의 소유

55) '남북조정운문제'에 대한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佐藤進一, 『日本の歴史9: 南北朝の動乱』, 中公文庫, 1974, 2~9쪽 참조.

자인 천황에 의해 위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무가 700년의 이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로이타의 논리 전환이 ‘아카데미즘사학’에 끼친 은혜는 지대한 것이었다.

넷째로, 이러한 구로이타에 신세진 전후역사학은 그를 집단 변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구로이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다이고천황 시대를 동경한 고다이고천황, 또한 고다이고천황을 정통으로 보려는 메이치천황의 ‘수사의 조’를 제대로 이해한 구로이타는 아카데미즘사학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굳건한 방파제였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실증주의에 입각한 근대일본의 ‘아카데미즘사학’은 구로이타의 경우에 의거하자면 선택적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아카데미즘사학’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 이는 무가를 부정하고 공가와 황가의 역사로 치환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조선사 편수 과정에서 사료의 취사선택을 행하고 있던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편의적 ‘아카데미즘사학’의 토양 하에 결국 국수주의 혹은 황국사관론도 생겨난 것이고, 또한 패전 이후 엄격한 사료에 입각한 실증주의를 내세우는 현재의 ‘아카데미즘사학’도 근대역사학의 뿌리와 동일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일본근대역사학과 구로이타에 관한 이해는 아직도 해명을 요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성고 이후의 과정에서 ‘일본근대역사학의 근대적 전환에 대한 개념’의 설명 및 구로이타 저작의 텍스트에 대한 직접적 분석 등에 아직 보완할 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 다음 기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고를 준비하기로 하고, 지면 관계상 여기서 각필하고자 한다. 여러 독자 제현의 질정을 바랄 뿐이다.

이 논문은 2021년 8월 25일에 접수되어,  
2021년 8월 31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9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21년 9월 15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문헌】

- 『特集:南北朝正閏問題100年』, 『歴史評論』 740, 2011.
- 강은영,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한국사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수사사업(修史事業)」, 『역사학연구』 66, 호남사학회, 2017, 205~233쪽.
- 김보한,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동북아 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35~50쪽.
- 김용섭,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관: 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사상계』 117, 1963.
- 김중복,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위한 예비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257~298쪽.
- 김현구 외,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09, 1~271쪽.
-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저/하종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1~352쪽.
- 노태돈, 「고대사 연구 100년-민족·발전·전승-」,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5~18쪽.
- 데시마 다카히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외교사·대외관계사에 대하여」, 『日本思想』 3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6, 97~119쪽.
- 박결순, 「식민지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2004, 1~480쪽.
- 박지영,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만주역사조사부」, 『日本思想』 35,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8, 177~200쪽.
- 세키네 히데유키,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황국사관」, 『동아시아고대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21.03.20.), 6~26쪽.
- \_\_\_\_\_, 「일본인의 형성과 한반도 도래설」, 경인문화사, 2020, 19~573쪽.
- 송환범, 「『육국사(六國史)』의 편찬과 '일본을령국가'의 수사(修史)사업-『속일본기』와 『일본삼대실록』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43, 일본사학회, 2016, 31~54쪽.

- 송완범, 『식민지 조선의 黑板勝美와 修史사업의 실상과 허상』,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95~124쪽.
- \_\_\_\_\_, 『일본근대역사학' 성립의 원류를 찾아-古文書學의 계보를 중심으로-』(홍익인간재단 제1차 컨퍼런스자료집, 서울교대, 2019년2월16일).
- \_\_\_\_\_, 『메이지(明治)유신과 다이카(大化)개신』, 『일본사상』 36,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9, 55~75쪽.
-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한국사학사학회, 2013, 277~320쪽.
- \_\_\_\_\_, 『일본 근대 역사학의 성립·발전과 '조선'의 위상-실증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그 그림자-』, 『동서인문학』 52, 인문과학연구소, 2016, 81~113쪽.
- 沈熙燦, 『朝鮮史編修會의 思想史的考察』, 立命館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 윤해동 외,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2016, 1~368쪽.
- 이정빈,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0, 413~429쪽.
- 장 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349~387쪽.
- 정상우, 『식민지에서의 제국 일본의 역사편찬사업』, 『한국사연구』 160, 한국사연구회, 2013, 143~181쪽.
- 崔在錫, 『黑板勝美의 日本 古代史論 批判』,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27~146쪽.
- 최혜주,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경인문화사, 2010, 1~406쪽.
- Lisa Yoshikawa, 『Making History Matter: Kuroita Katsumi and the Construction of Imperial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Asia Center, 2017.
- ヨシカワ・リサ, 『近代日本の国家形成と歴史学：黑板勝美を通じて』, 『立教大学日本学研究所年報』 14-15, 2016, 15~25쪽.
- 廣木尙, 『黑板の通史叙述：『アカデミズム史学』による卓越化の技法と『国民史』』, 『日本史研究』 624号, 2014, 1~32쪽.

일본근대의 '아카데미즘사학' 과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 383

大久保利謙, 『ゆがめられた歴史』, 『大久保利謙著作集7 日本近代史学の成立』 第5  
章, 吉川弘文館, 1988(초출은 1952).

佐藤進一, 『日本の歴史9: 南北朝の動乱』, 中公文庫, 1974, 2~9쪽.

〈Abstract〉

“Government-patronized Historiography” in Modern Japan,  
and *The Study of National History*(國史の研究) written by  
Katsumi Kuroita (黑板勝美)

Song, Whan-bhum\*

When did modern historical studies begin in Japan? What role did Katsumi Kuroita (1874-1946, 黑板勝美) play in modern historical studies in Japan: what is the significance of his r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swers to these questions. However, these two research tasks appear to be interrelated. The reason is that mainstream Japanese modern history was the outcome of government-led history compilation and positivist historiography, which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so-called “an imperialist view of history”, and the person who played the most pivotal role in this government-patronized historiography was Kuroita, a historian at that time.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Kuroita was closely related to the beginning of modern historical studies of Korea, a country which experienced colonialism during the period of “Imperial Japan.” The Study of National History (國史の研究) was compiled by Kuroita based on such a view of histor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 thorough analysis of Kuroita’s book is an appropriate method for gaining insights into modern historical studies based on his thought, as well as for insights into the origins of government-patronized historiography in Japan.

---

\* KOREA UNIV.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Key words : modern Japan; government-patronized historiography; Katsumi Kuroita (黑板勝美); controversy surrounding the orthodoxy of the Southern or Northern dynasties, in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of Japan (南北朝正閏問題); *The Study of National History*(國史の研究)

